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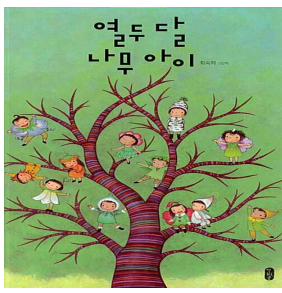

## >> 3단계 푸욱푸욱(4~5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건전지 아빠	전승배	창비	2021	 <p>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힘을 얻는 건전지 아빠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주는 에너지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양모 펠트 인형과 사실감 있게 묘사된 공간, 비밀스러운 상상력이 어우러져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판타지를 선사한다.</p>
2	고구마유	사이다	반달	2021	 <p>말놀이의 재미를 전한 전작 &lt;고구마구마&gt;에서 '-구마' 체로 이야기 하던 고구마 친구들이 &lt;고구마유&gt;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로 돌아왔다. 느리지만 워트 넘치는 충청도 사투리 대사는 고구마 맛보다도 구수하고 정겹다. 운율이 살아있는 문장들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맛이 살아있는 대사들을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해 말하다 보면 문해력과 말솜씨가 쑥쑥 늘어날 것이다.</p>
3	길어도 너무 긴	강정연	길벗어린이	2021	 <p>낮잠 자는 곰 한 마리, 책 읽는 호랑이 두 마리, 캠핑 하는 사슴 세 마리.... 기다란 꼬끼리 코 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물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숫자까지 익힐 수 있다.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릴리아 작가는 각각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손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동물들은 물론이고, 작은 주변 사물들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곳곳에 숨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p>
4	퐁퐁퐁	윤정주	책읽는곰	2016	 <p>냉장고 속 온갖 친구들이 한판 신나게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이야기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좋아하는 냉장고 속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이 음식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온갖 수다와 함께 멋진 사건들을 펼쳐 간다.</p>
5	낙엽스낵	백유연	웅진주니어	2019	 <p>아기 고라니, 멧돼지, 산토끼, 다람쥐, 들고양이, 작은 애벌레. 모두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사는 작은 생명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다. 작가는 숲속 친구들이 가을날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아기 고라니가 낙엽으로 스낵을 만들어 먹는다는 귀여운 상상력으로 표현했다. 낙엽 스낵을 만드는 고라니 옆에는 깜짝 손님도 등장한다. 이들은 고라니가 낙엽 씻는 것, 꽃잎 따는 것 등을 몰래 도와주면서 낙엽 스낵을 함께 만든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만찬을 준비하며 보다 풍성한 가을날이 완성된다.</p>




## >> 3단계 푸욱푸욱(4~5세 대상)

6	당근 유치원	안녕달	창비	2020	
	아기 토끼가 새 유치원에 가서 몸집도 목소리도 크고, 힘도 장사인 곰 선생님을 만나 점차 선생님과 마음을 나누며 유치원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작가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치원 배경과 생활 모습을 그리면서도 동화적인 따스함이 어려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유년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응원할 뿐 아니라 매일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까지 위로한다.				
7	맛있는 건 맛있어	김양미	시공주니어	2019	
	주인공 아이의 시각적 흐름과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서술된 '맛'의 이야기이자, 아이의 성장 앨범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의 소소한 관찰로 시작한다. 새는 감을 쪼아 먹고, 고양이 아노는 오이를 훔쳐 먹는다. 엄마는 사랑초에게 물을 주지만, '나 선인장'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 어린 동생 연우는 뭐든 입으로 집어넣을 만큼 어리다. 오늘은 단추를 먹으려다 들켰다. 관찰은 아이의 상상을 자극한다.				
8	미안해요	임은경	걸음동무	2022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실수나 잘못을 한 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과의 말, '미안해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로서 진심을 담아 전하는 '미안해요' 사과의 말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꼭 필요한 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과의 말은 정직한 사회, 배려의 사회를 낳을 것이다.				
9	별 낚시	김상근	사계절	2019	
	따스한 이야기꾼 김상근 작가가 들려주는 잠자리 그림책. 김상근 작가가 이번엔 새하얀 눈발이 아니라 푸른 밤하늘, 빛나는 별 천지로 우리를 초대한다. 장면마다 가득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 풍경은 고요한 밤에만 느낄 수 있는 차분하고 깊은 감성을 톡톡 건드린다.				
10	부끄러워도 괜찮아	황선화	모든요일그림책	2021	
	부끄러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못 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린 사자, 그런 사자를 위해 거북이와 박쥐와 늑대가 머리를 맞댄다. 부끄러움 많은 사자는 장기 자랑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부끄럼쟁이에게 다정한 용기와 응원을 전하는 그림책, <부끄러워도 괜찮아>에 시원한 해답이 있다.				

##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엄마 어디 있지?	박성우	창비	2022	
11	아이가 발달하는 동안 자연스레 나타나는 분리 불안의 모습을 실감나게 담으면서,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아이 마음을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상상으로 어루만지는 이야기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든든한 사랑을 선물한다.				
	엄마는 모를걸?	심은지	봄별	2022	
12	엄마 몰래 벌인 난장판 속에서 마음껏 노는 아이의 즐거운 웃음, 엄마와 딸의 다른 듯 닮은 일상과 유쾌한 유대를 담은 그림책. 어...? 내가 작아졌어! 이제부터 엄마 말 안 들어도 되겠다. 말랑말랑 달콤한 과자를 잔뜩 먹어 볼까? 우유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을 할까?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모를걸?				
	열두 달 나무 아이	최숙희	책읽는곰	2017	
13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은 매화나무 아이, 더불어 나누기 좋아하는 속 깊은 참나무 아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곳곳한 소나무 아이.... 일 년 열두 달, 달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나무가 내가 태어난 달의 나무가 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키워 가는 아름다운 꿈 하나하나가 더 풍부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독이는 그림책이다.				
	오! 당근	천미진	발견	2021	
14	<오! 당근>은 아이들과 조금은 어색하고 먼 사이인 당근이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귀여운 당근 캐릭터를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고, 먼 길을 여행하는 당근의 모습을 보며 당근과 다른 채소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왜냐면...	안녕달	책읽는곰	2017	
15	바닷가 마을에 반짝, 여름 소나기가 내린다. 엄마는 서둘러 유치원에 아이 마중을 왔다. 집으로 가는 길, 세상이 온통 궁금한 아이는 질문을 시작한다. "엄마, 왜 비가 와요?"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래." 아이의 끈덕진 질문과 엄마의 친절하고도 엉뚱한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둘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쳐 나간다. 그리고 늘 오가던 익숙한 귀갓길은 어느새 환상적인 여행길이 된다.				

##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16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림	창비	2017	
17	토끼일까?	크림빵	키즈엠	2017	
18	평범한 식빵	종종	그린북	2021	
19	해 한 조각	정진호	올리	2022	